오대산 전나무길이 어린이 놀이터로

어린이날 기념 오대산 걷기명상대회 열린다

5월 5일 오대산 선재길 일대서
놀이큰마당서 체험 한마당 전개
힐링콘서트, 사진공모전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걷기명상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전나무숲길을 가족과 함께 걷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오대산걷기명상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어린이 행사가 함께 열려, 오대산 전나무길이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질 예정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대산 선재길 일대에서 '제16회 오대산 걷기 명상 축제'를 개최한다.

오대산걷기명상축제는 2004년 5월 16일 시작된 국내 최초 걷기명상대회다. 월정사와 상원사간 약 10km구간을 걷는 행사로 1300여년 전 자장율사가 오대산문을 개창한 이후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걸은 구도의 길을 불자들이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가족과 함께 慧'를 주제로 기존 '선재길 걷기'에서 '걷기명상'이 더해져 가족 힐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오대산자연명상마을을 개관한 월정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대 명상 열기와 가족 단위 체험행사에 대한 참여열기가 일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붓다의 정원' 개막식 행사를 통해 문을 연다. 식전행사로 '나를 지켜보는 명상'을 통해 본격적인 걷기명상 전 명상수행법에 대한 안내와 실참이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특별행사로는 오전 10시부터 바람의빛깔길에서 전나무숲길까지 약 500명이 참여하는 걷기명상이 펼쳐진다.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전나무숲길에서 어린이날놀이큰마당이 오후 2시까지 마련된다.



어린이날놀이큰마당에는 문화재 문양 스크래치, 트리크라이밍, 우드공예, 놀이한마당, 경찰관과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이와 함께 완주 후 회향하는 장소인 선재길 회사거리에는 힐링콘서트 특설무대도 펼쳐진다. 여기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블쇼와 저글링, 마임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록의 계절 5월, 오대산 걷기 명상에 참여해 자연과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16회 오대산걷기명상대회에서는 부대 행사로 제15회 오대산전국디지털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오대산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대산의 다양한 길을 담는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의 길을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 불교문화 그리고 구도의 길 등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의달을 맞아 새롭게 움트는 생명을 살피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걷기대회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 관심에 올림픽 설상종목 발전"

스노보드 국가대표들,
수국사서 달마배 수상자들 만나



4월 21일 수국사를 방문한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와 달마오픈 수상자들이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한 스노보드 국가대표선수들이 국가대표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을 서울 수국사에서 만났다.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열기 시작해 달마오픈 챔피언십으로 대회를 키워온 호산 스님의 주선 덕분이다.

스노보드 국가대표인 김상겸 · 최보군 · 이상호 · 정해림 선수는 4월 21일 서울 수국사에서 달마오픈 중 · 고등 · 일반부 수상자들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는 16년째 스노보드 대중화에 힘써온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마련했다. 호산 스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달마오픈 대회는 국내 최장수 스노보드대회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계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 호산 스님은 그동안 달마배를 거쳐 국가대표로 성장한 선수들과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대화를 나누고, 한편으로는 올림픽 설상종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들을 초청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달마배 수상자들은 수국사에서 도량을 참배하고, 명상의 시간을 보내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평소 마주치기 힘든 국가대표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는 "국가대표는 대부분 해외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국내 대회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과 마주칠 일이 많지 않다"면서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마오픈 중등부 수상자인 윤창하(15) 군은 "국가대표를 목표로 노력하는 와중에 롤 모델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평소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꾸준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수들과 함께 사찰에 방문한 박영남 스노보드 위원장과 이상원 국가대표 알파인 감독은 오랜 시간 설상종목 발전에 힘쓴 호산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호산 스님은 선수들에게 간단히 명상을 지도한 뒤 "올림픽에서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 사찰 밖에서도 각자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며 "설상종목이 국내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갖도록 뒷바라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 병원법당 · 교도소 불서 지원

불교진흥원, 부처님오신날 기념 1800권 전달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4월 1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국 병원법당 30여 곳과 교도소 50여 곳에 불서 1800여 권을 전달했다. 불서는 도서출판 민족사 · 불광출판사 · 솔바람(설법연구원) · 운주사에서 발행한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 〈마음챙김 놀이〉 등 단행본 2종과 〈자타카의 노래〉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등 만화불서 17종이다.

진흥원 측은 "수감기관 재소자와 병원법당을 찾는 불자들에게 위안과 치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매년 불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2010년 전국 사찰 어린이, 청소년법회 450여 곳에 3000권의 만화불서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군법당과 병원법당, 사찰도서관 등에 불서를 보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성료

봉축위 · 불레협,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천진불들의 노래 경연이 펼쳐졌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는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31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노래잔치에는 조계사, 봉은사, 국제선센터, 진관사, 금륜사 등에서 6~13세까지 어린이청소년 300여 명이 참여했다. 독창 18명, 중창 5팀, 합창 2팀 등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노래를 뽐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어린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맞아 어린이 한명 한명을 모두 부처님처럼 존귀하고 거룩하게 모시자"며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새겨 맑고 영롱한 마음과 음성으로 널리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래잔치는 최연소 참가자인 유치부 김효경(6세) 양의 '착한아이'를 시작으로 유치부 공연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독창 그리고 중창과 합창 공연으로 진행됐다. 각자 준비한 율동과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응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가족과 신도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심사시간에 레크리에이션도 펼쳐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우리부처님을 부른 봉은사 최보연(초5)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지금이 제일 젊다" 어버이날 행사

종로노인福 '바운스바운스 시즌5' 5월 2일 마로니에공원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오는 5월 2일 복지관과 마로니에공원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바운스바운스 시즌5'를 개최한다. 복지관이 주최하고 복지관과 ㈜추억을파는극장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행사 당일 복지관 1층 경로식당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식전공연, 기념식,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토월, 장체험관 및 장카페 홍보처, 이화동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등의 부스를 체험할 수 있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로구 어르신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사회복지법인 동주
설립 20주년 기념법회
제4대 대표이사 정오스님 취임
법인비전 선포식 : 공로시상 및 부산 장애인 탁구선수 격려금 전달식
기념법회 : 치 사 경 선 큰스님 |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범어 대표이사
격려사 정 여 큰스님 |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동주 총재
일 시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장 소 불광산하 기장 장안사 설법전
문 의 051)531-9887
주 최 | 사회복지법인 동주 후 원 | 천년고찰 장안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